

2005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국어학

1. 편성

■ 일시: 2005년 4월 27일(수)~4월 29일(금)

■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일대

2. 일정

■ 4월 27일

- 09:00 교내 대운동장 집결 및 출발
- 13:00 ~ 14:30 남원(광한루) 도착. 점심 식사. 관광
- 14:30 ~ 15:30 숙소 도착. 방 배정
- 15:30 ~ 16:00 조사지 이동
- 16:00 ~ 18:00 조사지 이동 및 방언 조사(자연발화 채록)
- 19:00 ~ 20:00 저녁 식사
- 20:30 ~ 22:00 숙소 도착. 구례에 대한 학습

■ 4월 28일

- 09:00 ~ 10:00 아침 식사
- 10:00 ~ 17:30 조사지 이동 및 방언 조사
- 18:00 ~ 19:30 숙소 집결 및 저녁 식사
- 19:30 ~ 20:30 조사 보고
- 20:30 ~ 뒤풀이

■ 4월 29일

- 09:00 ~ 10:00 아침 식사
- 10:00 ~ 11:30 화엄사 관광
- 11:30 ~ 서울 출발. 점심 식사
- 성삼재, 정령치 경유 상경
- 18:30 서울 도착

ㅌ, ㄴ, ㄹ,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모음음소: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후설성]		[+후설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고모음성] [-저모음성]	ㅣ	ㅍ	ㅡ	ㅍ
[-고모음성] [-저모음성]	ㅍ	ㅍ	ㅍ	ㅍ
[-고모음성] [+저모음성]	ㅍ		ㅍ	

이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ㅍ/와 /ㅍ/의 구별이 뚜렷치 않다. 장음을 가진 /ㅍ/는 뚜렷하게 [e]로 실현되고 그 밖의 몇몇 예에서도 [e]와 [ɛ]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ㅍ/와 /ㅍ/ 모두 [E]로 실현되었다. 둘째, 전설 원순 모음 /ㅍ/의 음가가 불안정하다. 단모음의 음가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ㅍ/에 비해, /ㅍ/는 상향이중모음 [wi]와 단모음 [ü]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예) 굴뚝 [küt'uk]~[kwit'uk].

·활음음소: y, w

- 운소체계: ‘매:다, 채:소, 조:리’ 등의 단어에서 장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음장으로 뜻이 구분되는 지역이다. 예) 밤(夜): 밤:(粟), 손(手): 손:(孫). 음장은 1음절에서 매우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1음절에서 음장을 유지하던 어휘가 2음절 이하에서 음장을 잃어버리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외: ~ 물외(오이), 제: ~ 왕제/죽제. 구례군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어에서 동남방언과 유사한 성조체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 어휘: 체이(키), 서숙(조), 무시(무), 해우(김), 정지(부엌), 베롬빡(벽) 등.

- 기타 특징

·움라우트: 움라우트를 겪은 어형이 다수 존재한다. 예) 두루마기: 두루매기. 주격조사 ‘-이’와 계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 역시 활발하게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 삽 ~ 썸(이네), 질쌘 ~ 질쌘(이)

· · > ㄱ: 어두의 ‘·’가 ‘ㅏ’로 변화하지 않고 원순모음화된 어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서남방언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예) 파리 : 포리, 팔 : 폴, 팔 : 폴

· 체언어간말 /ㄷ/: 말음으로 /ㄷ/을 갖는 어형은 대부분의 경우 /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격조사나 계사와 결합될 때에는 구개음화되어 [ㅈ]으로 실현되었으며, 처격의 ‘에서’, 구격의 ‘으로’, 대격의 ‘을’ 등에서는 [ㄷ]으로 실현되었다. 특이한 것은 본래 말음이 /ㅏ/인 ‘낫’을 ‘낯’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ㄱ) 술: 소치, 소테, 소트로, 소틀~소슬

 밭: 바치, 바틀~바슬

(ㄴ) 낫: (벼를) 나트로 (베다)

·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규칙 활용: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하는 예가 관찰되었다. 이는 중앙어나 대부분의 서남방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동남방언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예) 덩다 : 더버

■ 조사 어휘 체계(앞: 표준어, 뒤: 구례방언형)

1. 농사

벼	모 / 베
벼(열매)	나락
뉘	뉘
뭍씨	베씨
못자리	모자리
김매다	지심매다
놉	놉
결두리	새꺼리
팽과리	팽사 ~ 캥사, 팽매기 ~ 깡매기
쟁기	쟁기
보습	보십
쇠	쇠

극쟁이	홀쟁이 ~ 홀챙이
씨레	씨:레 ~ 씨:리
호미	호맹이
자루	자리
팽이	팽이 ~ 깡이
쇠스랑	소시랑
삼	삼
농기구	농기구
벗단	짐문
벼훑이	홀테
짚	짚
새끼	사나쿠
노끈	사나쿠
도리깨	도리깨
멍석	덕석, 매물짜리
(짚)방석	방석
광주리	들광주리
바구니	바구리
떡등구미	멕따리
삼태기	산태미
절구	도구통
절구공이	도구때
디딜방아	드들빵애
확	확뚝
맷돌	매뚝
겨	제:
키	챙이
어레미	얼게미
보리	보리

깜부기	깜뷔(wi)기
밭	밭
밭둑	두렉
팔	폴
조	서숙
수수	쭈시
깨	꽤
참깨/들깨	참꽤/들꽤
(곡식)사다	돈산다
(곡식)팔다	판다
옥수수	옥수수
무	무시
시래기	씨래기
채소	채:소
나물	너:물
고갱이	배추쭈
파	꽤
고구마	고구매
가지	까지

2. 음식

김치	짐치
깍두기	똑딱지
간장	장:
두부	뜨부
콩나물	콩나물
상추	상추
오이	물외, 외:
부추	소풀, 슬:
김	짐:, 해:우

반찬	반찬
국물	국물구
솔	솔
이남박	조박지
조리	조:리
주걱	주벽
누룽지	누른밥
송늡	송냉
가루	가리
흰떡	흰떡
백설기	설기
밀기울	밀찌울
국수	국시
새알심	새알
수제비	수제비
과줄	이과, 유괴
튀밥	튀밥
엿기름	여찌름
식혜	시케
그릇	그룩
시루	시리
뚜껍	뚜껍이, 소두방, 복지게
툇배기	툇배기
바가지	바가치
부엌	정지, 부억
아궁이	부석
부뚜막	부뜨막, 부투
부지깁이	부지땡이
고무래	당그래, 불땡그래

부삽	부새키
숫	숫
화로	화리
부젓가락	줄지 ^ㄹ 락
석쇠	적사
담뱃대	담배때
성냥	성냥
굴뚝	귀뚝
그을음	수땡이, 거미영, ^ㄹ 스르미

3. 가옥

살강	살강
시렁	실경까래
선반	선반
서랍	빼도지, 빼다지
궤	궤
자물쇠	쇠통
열쇠	쇠때
베개	베개
목침	토막
누비이불	늬비이불
마루	말리
미단이	밀창문
돌쩌귀	돌쩌구
벽	베룸빻
귀얄	풀베
종이	종우
지붕	지붕
사닥다리	새드리, 새다리
기와집	지와집

초가집	뛰집
엮다	엮다
이다	이다
용마름	용모름
기둥	지둥
서까래	씨까래, 썰까래
고드름	고드래미
담	담
뒤결	뒤안터
장독대	장꼬방, 장짜내기
변소	벤소, 칩간
쌈	쌈:
우물	시아미, 썸미
두레박	두롱빻, 두름박
또아리	또가리, 또바리
도랑	또랑
개울	내:물
수렁	수구렁
거품	버꿈

4. 의복

빨래	서답한다, 서대비
다듬잇돌	따듬뜯, 따뜸뺑뺑이
다리미	대리미, 대리비
허리띠	허리끈, 허리띠
두루마기	두루매기, 둘매기
염낭	주머치, 주먼치, 도리주머니
고쟁이	반중꼬쟁이
버선	버신, 보신
대님	대심, 댄님

짚신	집씨기, 집썩
나막신	나막깨
형곶	흥곶대기, 흥곶때기
깁다	주어, 주어입는다
재봉틀	자방틀
골무	골미
가위	가새, 가시개
반짚고리	반짚그름
베	베
숨	소캐, 숨:
목화	미영, 면화
씨아	씨안, 씨아시
누에	뉘에, 뉘, 뇌 ~ 뇌에
번데기	웬데기, 끈데기
뽕나무	뽕나무
오디	오들개, 오드개

5. 신체

머리	머리뺨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크락
가마	가매
가르마	가리매
비듬	지깁, 지기미
턱	택, 텍쫓가리
수염	쉬염, 쉬염
턱수염	아래쉬염, 임념
콧수염	웃쉬염
구레나룻	굴레쉬염, 굴레쭈염
목	모가지
얼굴	낫, 날빠닥

뺨	볼태기
볼	볼, 연지뿔
보조개	볼거리
주름살	주름
눈	눈알
검은자위	꺼멍챙이
흰자위	흰챙이
눈두덩	눈탱(이)
눈썹	눈썹
눈곱	눈고시, 눈곱재기
다래끼	사마루
소경	봉사, 안맹이
애꾸	애꼬
코	코, 콘땡이
입술	입소리
혀	썰, 썰빠닥, 썰빠닥
병어리	버버리
말더듬이	반버버리
귀	귀
귓볼	귓뺨, 귓배비
귀지	귀창
귀이개	귀어지개
귀머거리	먹보, 귀먹쩌거리
세수대야	세수대야
씻다	씻고, 신는다, 시즌계
비누	비누
목욕	목욕
목물	등물
거울	쇠경, 쇠경, 맨경, 계울

빗	빈
얼레빗	얼개빈
참빗	참빈
손	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손바닥	손빠닥
손가락	손꼬락
마디	마디
겨드랑	저트랑(이)
젓	젓(저즈로, 저즐, 저시)
배꼽	배콧
허리	등
다리	다리
가부좌	발을 켜다
엉덩이	궁댕이, 볼구짜
넓적다리	허벅다리
무릎	무르팍, 무릅, 물패락
오금	오금쟁이
저리다	제리다
정강이	장판지, 압짱갱이
뼈	뼈, 뼈따구
복사뼈	녹성씨, 복송씨
부스럼	부시럼
고름	고림
사마귀	사마구
두드러기	두드레기
땀띠	땀때래기, 땀띠
벼집	버섯

주근깨	꺼른깨, 가마깨
여드름	이드름, 여지름
멍	퍼랑멍, 시퍼랭이
언청이	째보
곰보	곰보, 박:보, 뽕:보
천연두	손님, 뜰
홍역	뜰리, 홍진
감기	감:기
딸국질	포각질
사레	사레
트림	트름
채채기	재침
하품	하품
기지개	지지개, 지지리
졸음	션하품
졸다	자운다
졸리다	자우르다, 자울르다
방귀	방구
뀌다	꿨다
구린내	꾸린내
고린내	꼬랑내, 꾸린내

6. 가족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어미	아이아이야, 지그마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비	지그아비
할머니	할머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형	성
언니	으니
누나	누
오빠	오빠
아우	동상
결혼	결혼
결혼잔치	결혼잔치
며느리	며느리, 지시미, 메느리
처녀	처녀, 큰애기
새색시	새댁
사위	사우
올케	형님, 올케
시누이	씨누
매형	자형
매제	매제
시숙	시숙
서방님	아재
홀아버	홀아버
홀어미	호래비 가부

2005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

1. 답사 내용

- 기간: 2005년 4월 27일(수)~4월 29일(금)
- 지역: 지리산 일대(거창, 함양 등)
- 목적: 소규모로 편성된 각 조의 세부 전공을 살려 전공과 관련 깊은 문학 및 역사 유적을 답사하는 것은 주된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리산 일대에 산재해 있는 민간 전승 자료와 옛 문인들의 문헌 및 유적들을 주요 탐사 대상으로 삼아 자세히 조사하였다.
- 참가인원
지도교수: 서대석, 권두환, 박희병, 이종묵, 조현설, 정병설 교수
인솔교: 박이정
대학원생: 심우장, 이종석, 송재연, 김경희, 나수호, 백승호, 이홍우, 김홍매, 고은임, 이효원, 사요, 김홍백, 바야르, 불간, 박진백, 예브게니, 전금화, 채운미
학부생: 구슬아, 김지윤, 전주경, 최혜리, 채송화, 신현웅, 김보영, 양민주, 정윤홍, 김주연, 구민정, 장문석, 김한성, 박희수, 설웅부, 신혜정, 이수정

2.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 조별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4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각 조별로 서울을 출발했다. 각 조는 주로 거창, 함양 일대를 중심으로 전공과 관련지어 심층 답사를 실시했다. 구비문학반, 문헌반 1, 문헌반 2, 문헌반 3으로 나누어서 답사를 실시했는데, 그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비문학반: 구비문학반은 서대석·조현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심우장, 김경희, 이홍우, 바야르, 전금화, 구슬아, 전주경, 정윤홍, 김보영, 구민정 등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구비문학반은 주로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민요를 채록하고 유적지를 답사했다. 첫째 날은 먼저, 거창 당산리의 당송(堂松)을 구경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동해 사전에 연락을 취한 거창일소리 예능보유자인 박종섭 선생님의 면담 후, 주로 ‘거창 민요’에 대한 채록을 중심으로 답사를 실시했다. 둘째 날은 내오리에 있는 지석묘(支石墓; 경상남도 기념물 제 65호)와 위천면 강천리에 있는 정은(鄭蘊, 1569~1641) 선생의 생가(중요민속자료 제205호)를 답사했다. 그런 뒤에 거창의 명소인 수승대(搜勝臺)를 답사했다. 수승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뒤로 하고, 이어서 석총(石塚)으로 남아있는 가야고분군에 들렀다. 이 날의 답사는 거창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창박물관을 방문해 이 지역의 역사와 유물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문헌반 1: 문헌반 1은 권두환·이종목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종석, 송재연, 박이정, 김홍매, 백승호, 김홍백, 사요, 김진백, 예브게니, 김한성, 김주연, 양민주, 박희수, 설웅부, 안희영, 신혜정, 이수정, 장문석 등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문헌반1의 첫날 답사는 함양에서 시작 되었다. 함양에 있는 농월정(弄月亭), 군자정(君子亭), 거연정(居然亭) 등을 우선 둘러 보았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삼진동 용추계곡과 영송촌의 사략정을 답사했다. 둘째 날은 거창 문화원에 들러, 동계 정은(鄭蘊) 선생 집안의 문서를 열람했다. 이후 남계서원(南溪書院)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도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들을 열람함으로써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점심 때는 거창의 명승지인 수승대를 경유해 원학동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 첨모당(瞻慕堂) 임운(林芸, 1517~1602) 고택을 답사하고 자료를 열람했다. 그리고 동계 선생의 고택과 모리재(某里齋)를 답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헌반 2: 문헌반 2는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효원, 김지윤, 채송화 등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문헌반2의 답사는 크게 포천→함양→지리산 사찰이라는 경로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에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인상(李

麟祥, 1710~1760) 종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종가에서 전하는 문헌과 인보(印譜)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둘째 날은 장소를 함양으로 옮겨, 수동면 원평리에 있는 사근산성(沙斤山城)을 둘러보았다. 이후 함양읍으로 이동해 학사루(學士樓)의 진면목을 구경했다. 학사루 답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되어 있는 함양 향교를 답사했다. 다음에는 함양 상림 숲으로 이동하여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호안림(護岸林)을 구경했다. 상림 숲 답사 후에는 지리산 일대에 있는 사찰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졌는데, 남원의 실상사(實相寺)와 함양 마천의 금대암(金臺庵)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문헌반 3: 문헌반 3은 정병설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고은임, 채운미, 신현웅, 최혜리가 답사에 참여하였다. 첫째 날은 주로 고창 일대를 둘러 보았다. 아산면에 위치한 선운사(禪雲寺)를 답사했다. 그리고 폐교된 선운초등학교 봉암분교에 세운 미당 시문학관을 견학했다. 이곳에서는 미당의 옥필원고를 비롯해 각종 사진자료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당초상화, 만년의 유품과 각종 서적 등이 전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의 고택을 방문했으며, 이어서 인근에 있는 고창 판소리 박물관을 관람했다. 둘째 날은 전주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를 했다. 전북대에 들러 이태영 교수 소장의 완판방각본을 열람했다. 그리고 테마형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팬아시아 종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완판 간행지들도 둘러 보았다. 마지막 날은 익산에 있는 원광대를 방문해 여태명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완판방각본을 열람했다.

■ 전체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답사반의 전체 집결은 4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이루어졌다. 집결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숙소에서 답사에 참여한 전원이 모여 이틀 동안 이루어진 답사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답사 목적과 답사 내용, 답사를 통해 넓어진 견문 등이 주요한 보고 내용이었다. 답사 보고가 끝난 후에는 여독을 풀고 답사

원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까지 이어진 여흥을 통해 사제시간은 물론, 일면식이 없던 대학원생과 학부생들 사이도 보다 친밀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 날 각 답사반은 개별적인 답사 후 귀경하였다.

2005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문학

1. 답사 개요

2005년, 국문과 제44차 학술답사 기간에 현대문학전공자들은 경상남도 진주, 통영, 남해 일대를 둘러보았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과 각 지역이 배출한 문인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기간: 2005년 4월 27일(수)~4월 29일(금)

■ 장소: 경상남도 진주, 통영, 남해 일대

■ 참가인원

지도교수: 오세영, 신범순, 양승국, 박성창, 방민호 교수

인솔조교: 나민애

박사과정: 오주리, 이새봄, 이성희, 노연숙, 이형진, 정주아

석사과정: 이민정, 최유학, 조윤정, 최정아, 조은주, 정기인, 응웬, 엄춘화, 김조야, 최진, 이인나, 홍주영

학사과정: 박정섭, 남은혜, 백두산, 김영미, 정실비, 손나희, 김혜림, 이민영, 이광욱, 송지현, 임혁, 이경림, 서효정, 박진희, 이진희, 박미란, 김유리, 장동규, 이정미, 김기일, 조서연, 유재민, 문연정, 이규대, 전성진, 김현동, 성현진, 김새미나

2. 답사 일정

4월 27일 아침,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 모여 인원점검을 한 후 버스에 올랐다.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며, 현대문학답사팀은 서울에서 진주로 이동을 시작했다. 4시간쯤 지나자 진주임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진주성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진주성을 둘러보았다. 진주성은 논개가 뛰어내린 곳으로 유명하다. 많은 문인들의 시심을 자극했던 그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햇빛으로 반짝이는 남강을 바라보았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축석루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논개가 뛰어내렸을

장소가 어딘지 추측하며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축석루 바로 옆에 있는 의기사에는 논개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단아하면서도 굳은 절개가 드러나는 초상화였다.

이어 남강변 신안 녹지공원에 있는 이형기 시인 시비를 보았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낯익은 구절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 이어 다솔사로 걸음을 옮겼다. 소나무가 많아 ‘다솔’이라는 부드러운 어감의 이름을 얻게 된 다솔사는 역사의 깊이를 간직한 고색창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설적인 시어로 깨달음을 추구했던 한용운과 우리의 전통에 대해 깊은 고민을 보여준 김동리가 거처했다는 사실이 다솔사를 더욱 찬찬히 돌아보도록 만들었다. 때마침 절에서 장을 담그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과 사람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었다.

거제시의 식당에서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저녁식사를 하고 펜션으로 향했다. 방 배정을 한 후, 답사발표를 위해 모두 한 방에 모였다. 학부생 백두산이 이형기의 생애에 대해 발표하였고, 석사과정 이민정이 이형기의 시 세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학부생 남은혜가 유치환 생애에 대해 발표하였고, 박사과정 이새봄이 유치환의 아포리즘 시에 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후, 펜션 마당에 모두가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며 고기를 구워먹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저녁을 먹었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거제 포로수용소로 이동하였다. 거제 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1년 2월부터 고현 수월 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된 곳이다. 지금은 건물 일부만 남아있지만, 수많은 모형들과 영상들이 당시 포로들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아픔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그곳을 빠져나와 유치환 생가로 향했다. 통영과 거제는 유치환의 태생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 현재 유치환의 생가는 두 개이다. 거제에 있는 시인의 생가는 정갈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통영에 가니 청마의 문학세계를 기리고자 세워진 문학관이 있었다. 모두 세 개의 주제로 짜여 있는 이 예술관은 청마의 유품 100여 점과 각종 문헌 자료 35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유치환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유물전시를

통해 시인의 다양한 면모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청마의 발자취>코너에서는 청마의 편지, 서적,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인간 유치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남망산 조각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997년에 세워진 이곳에는 세계 10여 개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꽃과 바다와 조각이 어우러져서, 가슴을 탁 트이게 했다. 또한 ‘김약국의 딸들’ 영화촬영 기념비는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을 소재로 글을 써온 박경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고, 박경리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답사발표 시간을 가졌다. 학부생 정실비가 박경리의 생애에 대해 발표하였고, 박사과정 노연숙이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계몽의 서사’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후 다함께 방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노산공원으로 향했다. 노산 공원은 바다를 마주보는 언덕에 세워진 도시공원이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려수도의 시원한 조망이 눈에 들어왔다. 박재삼의 시비가 남해바다를 내려 보며 세워져 있었다. ‘천년전에 하던 장난을/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시구가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공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남해 특유의 돌로 된 해변을 거닐었다.

이어 남해 보리암으로 발길을 돌렸다. 보리암 가는 길은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올라가니 향일암 관음보살상 앞에 남해의 비경이 펼쳐져 있었다.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즐겁게 해줄 광경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쏘였다. 한숨 돌리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작별인사를 하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번 답사는 남해특유의 잔잔한 바다풍광과 잘 꾸며진 공원 덕분에 눈과 마음과 머리가 모두 즐거웠던 답사였다. 또한 남해의 자연과 풍물 속에서 문학을 했던 문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